

주일의말씀

성령 안에서의 삶

박창환 레오 신부
중방본당 주임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을 파견하시면서 ‘숨’을 불어넣으며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받아라.”(요한 20,22) 유다인들을 두려워했던 제자들은 성령 강림을 통해 예수님의 복음을 담대하게 온 세상에 선포하게 되었습니다.

성령은 우리를 복음적으로 살도록 인도하십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 와 있는 하느님의 나라를 보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가족과 이웃 안에서 하느님의 나라를 보게 하여 더 사랑하고 나누도록 하십니다. 성령은 삶의 십자가 안에서도 하느님의 나라를 보게 하시어 더 삶을 받아들이고 맡기도록 하십니다. 성령은 이 세상 안에서 함께하시는 하느님을 보게 하십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들은 성령을 잘 의식하지 못하며 살고 있습니다. 물질적인 세상에서 눈에 보이는 것만을 추구하고 그래서 어떤 특별한 현상을 통해서만 성령을 체험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성령은 ‘숨’으로 다가오고 계십니다. 숨이란 일상적입니다. 우리들은 일생 숨을 쉬면서 살아갑니다. 숨은 우리 자신의 힘이나 특별한 방법으로 쉬는 것이 아니라 숨은 저절로 주어집니다. 여기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숨처럼 우리 가까이 평범함 안에 계시면서 활동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체험하는 것은 어떤 특별한 현상을 통해서만이 아니라 일상 안에서 체험됩니다.

성령 안에 사는 사람은 일상을 의식하는 사람입니다. 일상을 의식하면서 바라보는 사람은 그 안에서 활동하시는 성령을 보게 됩니다. 일상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성령을 체험합니다. 그렇게 성령 안에서 사는 사람은 일상 안에서 하느님의 나라를 보며 감사와 찬미를 드리는 사람이 됩니다. 성령 안에서 사는 사람은 일상을 받아들이며 하느님께 내어맡기는 사람이 됩니다. 성령을 떠나 자신의 힘으로만 살려고 하는 사람은 모든 일에 긴장이 생기게 되고 결국엔 넘어지게 됩니다.

성령은 우리가 만나지 못할 높은 곳이나 특별한 현상 안에 계시지 않습니다. 성령은 ‘숨’처럼 우리 일상 가운데 계시며 활동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모두 일상을 감사하면서 자주 기도와 노래로써 성령을 청하도록 합시다.

“오소서 성령이여, 내 마음에 오소서.” 아멘. 



교구시노드 제1차 전체회의

“새 시대, 새 복음화”

◆ 일시: 2011년 6월 12일(일) 14:00 ◆ 장소: 교구청 교육원 강당





캠프캐럴 미군기지 고엽제 매립 논란에 대한 우리의 견해

지난 5월 19일, 주한 미군에 복무하다가 전역한 스티브 하우스 씨가 애리조나 지역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1978년 성베네딕도왜관수도원 인근에 위치한 캠프 캐럴 미군기지 내에 고엽제로 채워진 55갤런(208) 드럼통 250여개(50t)가 매립되었다고 주장했다. 이 주장이 보도됨에 따라, 캠프 캐럴 인근 주민들이 불안에 휩싸인 것은 물론이고 다른 주한 미군 기지에도 유사한 매립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에 대한 국민의 의심도 확산되고 있다. 정부와 주한미군사령부는 관련 사실을 엄중히 조사하겠다고 약속하였고 또 조사에 착수하였으나, 지역 주민들의 불안을 가라앉힐 만한 확실한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불신과 공포가 가시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만약 주한 미군이 캠프 캐럴 기지에 고엽제를 매립한 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경악할 만한 환경오염행위이자 범죄이므로, 이는 주한 미군과 지역민들, 더 나아가서는 미국과 한국 간의 신뢰와 우호관계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힐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다. 만약 독성물질이 지하수와 토양을 오염시켜 왔다면 기지 내에서 생활하고 있는 미군과 그들의 가족, 인근 지역의 주민들은 심각한 위험에 처해 있으면서도 그 사실을 모른 채 생활해 온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 논란의 진상을 밝히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전폭적인 지지와 격려를 보내는 동시에, 주한 미군과 정부의 관계기관들이 이 사건을 철저히 조사하여 앞뒤 관계를 솔직하고도 소상하게 밝히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 줄 것을 기대하고 또 강력히 요청한다.

이러한 논란을 계기로 우리는 환경문제에 대해 좀 더

큰 관심을 기울여야 할 필요를 절감한다. 이 땅은 고엽제와 같은 독성물질을 차치하고라도 생활폐기물, 산업폐기물, 음식찌꺼기, 폐수, 분노를 감당하기에도 이미 힘겨워하고 있다. 엄청난 양의 곡물과 에너지 그리고 원자재를 수입하고 전국의 수많은 산업시설들이 만든 각종 제품들을 수출해서 살아가는 우리나라의 산업구조는 자칫하면 중대한 환경문제를 야기할 소지를 안고 있다.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 환경문제는 단지 윤리적인 문제만이 아니다. 환경은 인간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을 드러내시는 계시의 발판이며, 또한 하나님의 거룩한 창조의 숨결을 담고 있는 하나님의 작품으로서 소중한 신앙적 가치와 의미를 지니고 있다. 환경에 대한 우리 신앙인의 근본적이고도 새로운 인식과 성찰이 필요하며, 그러한 인식과 성찰을 바탕으로 모든 피조물과 더불어 평화를 누리는 정의로운 삶에 대해 깊이 묵상하고 실천하는 자세가 이 시대에 꼭 필요하다. 따라서 우리 신앙인부터라도 보다 환경 친화적인 삶, 청정한 삶을 생활화해 나가야만 한다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고 실천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 하겠다.

우리는 이번 고엽제 매립 논란이 환경의 중요성을 깨닫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하며, 진실과 정의에 바탕을 둔 선명한 조사와 후속 조치가 반드시 이루어지기를 거듭 촉구하는 바이다.

2011년 6월 3일
천주교대구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천주교대구대교구 환경위원회

알고 보니

박성규 엘리지오





오늘의 미사

성령 강림 대축일

입당성가

493 살아계신 주 성령

화답송

◎ 주님, 당신 숨을 보내시어, 온 누리의 얼굴을 새롭게 하소서.

복음 환호송

◎ 알렐루야.

봉헌성가

220 생활한 제물

영성체송

모두 성령으로 가득 차, 하느님의 위업을 선포하였네. 알렐루야.

파견성가

150 모든 은혜 근원이신 성령

영성의 향기

:: 화해는 빨리 해야 합니다

이웃과 화해가 필요하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이는 우리 양심을 통해 하느님께서 주시는 신호입니다. 더 그대로 두었다가는 상처가 깊어 서로의 영혼에 심각한 해를 끼칠 지도 모른다

는 신호인 것입니다. 이런 때는 누가 잘못했느냐, 또는 누구의 탓이 더 크냐 하는 문제로 따질 것이 아니라 어찌되었든 한시 바빠 화해를 해야 합니다. 자존심 세울 때가 아닙니다. 하느님의 신호를 받은 내가 먼저 손을 내미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이 화해는 주님께 예물을 드리는 것보다 더 급한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먼저 형제와 화해를 하고 나서 제단에 예물을 바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째서 형제와 화해하는 일이 그다지도 급합니까? 더 오래 두었다가는 상처가 악화되어 큰일이 나기 때문입니다. 하느님께서서는 자녀들인 우리를 걱정하시어 빨리 낫게 되기를 바라시고, 그래서 우리 마음에 화해를 향한 충동을 보내십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도 잘잘못은 가려야 하지 않는가?”하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형제 둘이 서로 다투었는데 부모님이 이 때문에 마음이 상하셔서 슬퍼하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시비를 가리는 것보다 더 급한 일은 형제간에 불화하는 불효를 당장 그만두고 부모님의 마음을 위로해 드리는 일입니다. 



- 교구사목국 권가타라나 수녀 -

짧은 글 - 깊은 생각

겨울에 나무를 베지 않는 이유



어느 추운 겨울, 땀감을 주우러 나간 한 소년이 시들어버린 고목나무를 발견하고는 장작을 만들 요량으로 그 나무를 잘라 집에 끌고 왔습니다. 할아버지께서 소년에게, “얘야, 겨울에는 고목나무를 자르지 않는 법이다.” 하고 안타까운 표정으로 타이르셨습니다. “왜요? 말라죽어서 쓸모도 없는 걸요.” 하고 소년이 대답하자 할아버지는 “오는 봄에 그 나무 동치에 다시 가 보렴.”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추운 겨울이 다 지나가고 봄이 오자, 소년은 지난겨울 자기가 잘랐던 그 나무동치에 가 보았습니다. 다 죽어버린 줄 알았던 고목나무 동치에는 새순이 돋고 있었습니다.

- 옮겨온 글입니다 -

† 영원한 안식을 주소서
6.14(화)은 故박창수(요한) 몬시뇰 2주기입니다.

모임 / 행사

고엽제에 대한 주민설명회 및 생명평화미사
일시: 6.18(토) 15:00, 왜관분도수도원성당

예비신학생 월 모임

일시: 6.19(일) 14:00, 남산동신학교 운동장

젊은이 성령기도회

일시: 매주 화요일 19:30, 삼덕젊은이성당

※다움카페 '젊은이 성령기도회'

한반도 평화기원 미사

일시: 6.17(금) 11:00 (식전행사 10:00)

장소: 임진각 평화누리 공원

집전: 정진석 주교, 강론: 강우일 주교

문의: 주교회의 민족화해후원회, (02)460-7695-7

성소 / 피정

마리아 영성피정 (성체현시, 미사안수)

일시: 6.15(수) 13:00-17:00, 지도: 강요셉 신부

문의: 삼덕성당, 422-6691

예수의까리따스수녀회 기다에 모임

일시: 6.18(매월 셋째 토요일) 18:00

장소: 만촌1동 성당 수녀원

문의: (010)3402-5232

<http://cafe.daum.net/vocatio>

예수회 성소모임

일시: 6.18(토), 공동체 방문

장소: 예수회관구본부

문의: (010)7197-7400, vocsj@hanmail.net

한국성모의자애수녀회 성소모임

일시: 6.19(매월 셋째 일요일) 14:00, 칠곡동명본원

문의: (010)3113-6219 (<http://smm.or.kr/>)

사랑의씨튼수녀회 성소모임

일시: 6.19(일) 14:00

장소: 하양 수녀원

문의: (010)5705-5004

프란치스코 영성특강 및 미사

일시: 6.18(매월 셋째 토요일) 14:00

장소: 월배수도원

대상: 53세 이하 가톨릭신자

문의: 632-9800 / (011)9594-9441

올리베타노성베네딕도 수녀회

일시: 6.19(일) 14:00, 가톨릭여성교육관

문의: (010)9510-1131

MR부부피정(성경묵상 프로그램)

일시: 6차-7.9(토) 7:30 ~ 10(일) 16:00

장소: 한티피정의집, 문의: 473-5712

※부부로서 함께 하느님께 돌아가자

천주의성요한의료봉사수도회 성소모임

일시: 6.18(토) 14:00-17:00

장소: 서울 가양동 수도원

대상: 보건의료 및 사회복지 사도직에

관심 있는 청년 · 미혼 남성

문의: (010)3800-1579 (www.johnofgod.or.kr)

빈센트 수녀회 성소모임

일시: 6.19(일)

장소: 수원성빈센트드뵤자비수녀회 본원

대상: 주님의 길을 걷고자 하는 미혼 여성

문의: (010)8833-8107 / (011)336-8107

성빈첸시오아바오로 사랑의말회 성소모임

일시: 6.19(매월 셋째 일요일) 14:00

장소: 군포수녀원 (경기도군포시 군포성당 옆)

문의: (010)6625-0927

교육 / 모집

6월 가나강좌 (1인당2만원, 당일접수)

일시: 6.19(일) 10:00-17:00

장소: 가톨릭의료원 의대 마리아관

문의: 641-5678 / (010)8853-7458

로고스 말씀가족(성인반) 여름연수

제3차 창세기 연수

일시: 7.23(토)-24(일), 베네딕도영성관(사수동)

제4차 탈출기 연수(창세기 연수 수료자)

일시: 8.27(토)-28(일), 연화리피정의집

문의: 교구 성서사도직, 250-3082

대구가톨릭대 한국어교원양성과정 개강

지원자격: 대학교 3 · 4학년 및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

서류접수: 6.1(수) ~ 27(일)

개설기간: 7.4(월) ~ 8.12(금) 18:20-22:00

문의: 850-3767, 3769, 3160(<http://kli.cu.ac.kr>)

가톨릭문화관 교육생모집(476-6211)

바이올린, 플룻, POP, 초크아트, 롤페인팅,

포크아트, 천연비누 · 화장품 만들기

38차 마신부님 아일랜드 영어연수

초 · 중 · 고: 7.23(토) ~ 8.15(일)

*유럽 학생들과 함께 연수

대 · 일반: 6.26(일) ~ 8.7(일)

주관: 마 신부님(아일랜드 골롬반회)

문의: 그린피스 E&T, (02)3446-4253

가톨릭 요셉발견강회 강좌 발은 제2의 심장

일시: 매주 토요일 14:00-16:00(10회)

문의: 476-7774 (교재 및 도구포함10만원)

홈페이지: www.footfather.com

직원 채용

소화성당 사무직원 채용

구비서류: 자기소개서, 교적사본, 주임신부추천서

접수: 소화성당신행, 6.17(금) 12:00까지

문의: 622-4542

안내

교구법원공시(253-9550)

아래 공시되는 분은 교구법원으로 연락주시기 바

랍니다. 관련된혼인에 대해 문의할 것이 있습니다.

성명: 문동환

미 사	일 시	장 소	미 사	일 시	장 소
1대리구 성소후원회 월례미사	6월 13일(월) 오전11시	계산주교좌성당	포항지역 밀알후원회 미사	6월 13일(월) 오전11시	죽도성당
2대리구 성소후원회 월례미사	6월 13일(월) 오전11시30분	2대리구청-범어성당	대구가톨릭생활자협의회 월례미사	6월 13일(월) 오후7시30분	삼덕젊은이성당
3대리구 성소후원회 월례미사	6월 13일(월) 오전11시	3대리구청-월성성당	가두선교단 월례미사	6월 14일(화) 오후2시	성모당
구미지역 군중후원회 미사	6월 13일(월) 오전11시	신평성당			

코리아알트만 시스템

혼인을 앞둔 교우 자녀와
엘리트미혼 남녀의
결혼을 상담합니다.
박복순(오地利아)
● 지하철 2호선 범어역 4번 출구 ●
TEL 743-4488 FAX 744-1594

라식, 백내장수술 전문안과

대구연세안과
iFS-아이리식, 알티산, 백내장수술
의 학 박 사 원장 박 중 원 (소시모)
현 연세대의료교수
(지하철1호선 영대병원역 2번출구)
☎ 626-8881~5

한 신 주 백

신축 및 주택수리
지붕칼라강판 판별공사
지붕 우레탄폼 방수
방풍창고 보온단열
053) 555-5432
박일주(마태오) 011-529-7501

송월타올

* 인쇄무료 *

이영용(베드로), 심옥섭(미카엘라)
☎ 010-9431-3276, 629-0745
가톨릭문화관 1층

그랜드 통증의학과

(비수술적인 통증 치료 전문)
허리, 어깨, 무릎 등 관절통
골프, 테니스 등 스포츠 통증
통증의학 전문의, 원장: 정순우 (요.셀)
범어네거리 그랜드호텔 건너편 범어롯데캐슬 상가 2층
☎ 755-5572 (지하철범어역 4번 출구)

서정의 피부과

피부 질환, 레이저, 스킨케어, 보톡스
박의현 구심내과 심장전문
의 심장병, 고혈압, 고지혈증, 심장초음파
위치: 지하철2호선 경대병원역 3번출구
☎ 256-6700 서정희(카타라나)
☎ 252-1785 박의현(안드레아)

약손 척추 교정원

디스크 · 요통 · 신경통
근골격계, 신경계질환
지압, 교정, 자세, 체질검사
30년 전통 이 루카 425-7695
대구역 옆 라이프 상가 245-1호
www.m-hand.co.kr

안심하고 찾을 수 있는 병원
안 심 내 과
(30년 전통의 (구)이상계 내과)
내과 전문의 5인 진료 765-3771
심장 · 순환기, 소화기 · 내시경 전문
공단검진, 5대암검진, 각종 종합검진
이상계(바오로), 이준영 · 김영섭(베드로) 외 2인
들안길 베게리 ~ 황금성당 사이